

5승만 더하면 준PO行 확정

KIA, 12일 최종 LG戰 이전 3위 굳힌다

4승 팬 LG 전승해야 역전...3승 팬 LG 4승 이상 필요
두산은 3경기 남아...KIA, 2승만 추가하면 4위 확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정규시즌 3위 굳히기에 들어간다.

남은 경기는 6경기다. KIA가 5승을 거두면 다른 팀의 결과를 따질 필요가 없다. 자력으로 3위를 확정한다.

KIA는 지난 5일 잠실에서 LG 트윈스를 6-4로 꺾었다. 잠실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다. 순위도 뒤집었다.

5일 기준 KIA는 138경기 75승61패2무, 승률 0.51로 3위다. 4위 LG는 139경기 75승63패1무, 승률 0.513이다. 두 팀의 격차는 단 1경기다.

5일 두산은 72승64패5무, 승률 0.529를 기록하고 있다. KIA와는 3경기 차다.

불과 사흘 전까지 LG를 쫓던 KIA다. 이제는 지키는 입장이 됐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LG와의 격차가 크지 않다.

KIA는 6일 광주에서 삼성과 맞붙는다. 이어 7일 시작에서 롯데를 상대한다. 9일에는 창원에서 NC와 만난다.

이후 광주로 돌아온다. 10일 SSG, 11일 롯데와 차례로 맞붙는다.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인 12일에는 LG를 불러들인다.

추가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경위의 수는 비교적 간단하다.

남은 6경기에서 5승을 거두면 계산은

끝난다.

KIA가 5승1패를 기록하면 80승62패2무로 시즌을 마친다. 승률은 0.533이다.

LG가 남은 5경기를 모두 이겨도 KIA를 넘지 못한다. LG의 최종 성적은 80승63패1무다. 승률은 0.539다.

KIA가 4승2패를 거두면 79승63패2무, 승률 0.536으로 시즌을 마친다.

이 경우 LG가 KIA를 넘으려면 남은 5경기를 모두 이겨야 한다. LG가 한 경기라도 패하면 KIA가 3위를 지킨다.

KIA가 3승3패를 기록하면 최종 성적은 78승64패2무다. 승률은 0.549다.

이 경우 LG가 KIA를 넘으려면 남은 5경기에서 4승 이상을 거둬야 한다. LG가 3승2패 이하에 그치면 KIA가 3위를 지킨다.

두산의 추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

두산은 3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모두 이겨도 75승64패5무다. 승률은 0.540이다.

KIA는 2승만 추가하면 두산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다. KIA가 2승4패를 기록하면 77승65패2무가 된다. 승률은 0.542다.

두산이 전승해도 KIA를 넘지 못한다. 두산이 한 경기라도 패하면 KIA는 1승만 추가해도 두산보다 높은 승률로 시즌을 마친다.

7일 잠실에서 열리는 LG와 두산의 맞대결도



지난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원정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으로 스윙을 달성한 KIA 선수단이 경기 후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눈여겨볼 경기다.

승패가 갈린다면 KIA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패해도 나쁠 게 없다.

다만 현재 순위 경쟁을 놓고 보면 LG가 지는 편이 더 유리하다. KIA가 3위를 놓고 직접 경쟁하는 팀이 LG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정규시즌 최종전까지 가지 않고 3위를 굳힐 수 있느냐다.

KIA는 12일 LG를 만나기 전에 5경기를 치른다.

LG는 같은 기간 4경기를 소화한다. NC와 두산을 한 차례씩 만난다. 롯데와는 두 차례 맞붙는다.

KIA가 4승1패, LG가 3승1패 이하라면 KIA의 3위가 확정된다. 12일 맞대결 결과와 관계없다.

KIA가 3승2패라면 LG가 두 번 이상 쳐야 3위 싸움을 최종전 전에 끝낼 수 있다.

반대로 LG가 버티면 3위 싸움은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다.

KIA가 4승1패라도 LG가 4전 전승하면 안심

할 수 없다. 12일 맞대결에서 3위가 결정된다.

KIA가 3승2패에 그치면 여유가 더 줄어든다. LG가 3승1패 이상이면 마지막 맞대결까지 가야 한다.

KIA가 이보다 승수를 적게 쌓으면 경위의 수는 더욱 복잡해진다.

공교롭게도 정규시즌 마지막 상대가 LG다. 장소는 광주다. 마지막 맞대결의 부담을 덜 방법은 하나다. 그전에 최대한 달아나는 것이다.

/주홍철 기자

“목표는 금 21개 이상” 2026 장애인AG 선수단 결단식...“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무대”



6일 경기도 이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결단식에서 선수단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 이즈미 일원에서 열린다. 한국은 18개 전 종목에 357명(선수 214명·경기 임원 104명·본부 임원 39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21개 이상을 목표로 열전에 뛰어들었다.

/연합뉴스

‘샌디에이고 지명’ 최병용, KIA 유니폼

KIA, 육성선수 7명 영입

KIA 타이거즈가 투수 이준혁(22), 최승혁(20), 내야수 최병용(24), 이지원(21), 송승엽(23), 외야수 김태연(22), 지승기(22) 등 총 7명을 육성선수로 영입했다.

광주일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우완투수 이준혁은 뛰어난 신체 조건과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선발 자원이다.

광주동성고를 거쳐 부산과기대를 졸업한 우완투수 최승혁은 볼의 움직임이 좋고 각이 큰 변화구가 강점이다.

내야수 최병용은 신일고를 졸업한 뒤 2023년 MLB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611순위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입단한 이력이 있다.

우수한 신체조건과 빠른 배트 스피드에서 나오는 장타력이 강점인 선수이다.

대전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이지원은 안정적인 타격 능력과 성실함이 강점이며, 총암고와 동원대를 졸업한 송승엽은 뛰어난 운동 능력과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

부산고와 동원대기대를 졸업한 외야수 김태



KIA 타이거즈에 육성선수로 입단한 최병용. 〈KIA 타이거즈 제공〉

연은 컨택 능력이 뛰어나 올 시즌 대학리그에서 꾸준히 높은 타율을 유지했다.

서울자동차고와 한일장신대를 졸업한 지승기는 우수한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공수주 전반에서 안정적인 기량과 경기 수행 능력을 보였다.

KIA 관계자는 이번 영입에 대해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했지만 눈여겨보던 선수들을 테스트를 거쳐 영입했다”며 “선수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고, 구단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과 지속적인 출전 기회 제공을 통해 팀 전력에 보탬이 되는 선수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홍철 기자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제주서 전남선수단 격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가 열린 제주를 찾아 전남 선수단을 격려했다.

(사진)

송 회장은 지난 1일 제주 복합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사전경기 현장을 찾아 전남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열띤 응원을 함께했다. 경기 후에는 선수단에는 격려금도 전달했다.

송 회장은 “전남을 대표해 가장 먼저 경기에 나선 배드민턴 선수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준비한 기량을 경기에서 충분히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전남도체육회는 8일 탁구와 체조, 15일 사이클 사전경기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박희중 기자

배드민턴 김선우·여서영, 광주선수단 첫 금



전대사대부고 단체전 銀...광주체고 여U18 단체전 銅...광주은행 조송현·진성익 조 개인복식 銅

JEJU 2026 김선우(전대사대부고)와 여서영(광주체고)이 오는 16일 개막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광주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김선우와 여서영은 지난 2일 제주 복합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U18 혼합복식에서 전북 선발(김태현·최예다)을 세트 스코어 2대1(21-15 16-21 21-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선우·여서영 조는 예선에서 울산(강예원·송민교)을 2대1, 준준결승에서 충북(강경태·심영선)을 2대0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라 강원(송연우·이태희)을 2대0으로 완파한 후 결승에 안착했다.

전대사대부고는 남자 U18 단체전 은메달을 따냈다.

김선우·나선재·나성현·홍수민·최선빈·이서우·정태민으로 팀을 꾸린 전대사대부고는 예선에서 충남을 3대2, 준준결승에서 대구를 3대1, 준결승에서 전남을 3대2로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전북에 1대3으로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광주체고 김나연과 이윤서는 여자 U18 개인복식 동메달을 차지했다. 예선에서 대전(김세희·정윤지)을 2대0, 준준결승에서 경남(김보혜·박안다미로)을 2대0으로 제압하며 준결승



사전경기로 열린 배드민턴에서 광주선수단에 첫 금을 안긴 양영모 지도자, 여서영, 김선우, 노현숙 지도자(왼쪽부터)

〈광주시체육회 제공〉

에 오른 김나연·이윤서 조는 경북(권민교·이성은)을 넘지 못하며 동메달에 그쳤다.

김나연과 이윤서는 여서정, 권혜원, 이예은, 하의정, 정아름과 함께 출전한 여자 U18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다.

이밖에 여자대학부 조선대(이아영·이지안·박서아·오시연·김서현·문하은·김다나)도 단체전을 동메달을 획득했고, 남자일반부에 출전한 조송현·진성익(광주은행) 조도 개인복식

에서 값진 동메달을 보냈다.

전남선수단은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정다환과 조은빛(전남기술과학고)이 남자 U18 개인복식에서 동메달을 따냈고, 정다환·조은빛은 같은 학교 정수영·정재민·박정홍과 팀을 이룬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합작했다.

공여진, 김보민, 유아연, 장민운, 정다연, 한승연으로 팀을 꾸린 화순군청은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보냈다.

/박희중 기자